



MONTHLY KOFA

코파의

정신

Tel. 021-30029090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세상 모두가 흔들려도!!!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한·인니 차관급 경제협력위... “산업협력·무역투자 논의”



▲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 7월 17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동유럽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5~26일 이틀간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조정부 리잘 차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때 양국 간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 위 MOU’ 이행을 위한 것이다. 양국은 무역투자, 산업협력,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인도

네시아 산업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때 규제 완화 문제를, 산업협력 분야에선 양국 간 전략적 산업 가치사슬 구축 등을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선 이커머스 유통채널 협력 등이 논의 주제로 올랐다. 박기영 차관보는 “한국 정부는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 주력산업 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확대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장관급 경제협력 위원회를 열어 경제협력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인니 경제조정장관, 일자리창출 법안 10월 초 의회 통과 전망



인도네시아 아이들랑가 경제조정장관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이 10월에 있는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의회 심의는 75% 완료했다. 현지 언론 인베스틀 데일리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랑가 경제조정장관은 “이번 의회에서 심의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민주당(Partai Nasional Demokrat, 나스뎀당)의 아마드 알리 의원은 “이번 의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심의가 필요한 약 8,000개 항목 중 1,700개 항목의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조니 부회장(산업 담당)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은 10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을 방해하던 많은 문제가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은 ‘인허가 간소화’와 ‘투자 조건’, ‘고용’, ‘사업 편의’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용’ 항목이 경영자와 노동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제화협회, 회원사 18%가 생산 중단



인도네시아 제화산업협회(Aprisindo)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원사의 1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회에 가입한 약 120개사의 직원 중 최소 수만 명이 실업이나 해고 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prisindo 관계자는 “국내 공장의 가동률은 32%까지 떨어졌다”며 “생산에 계속하고 있는 공장도 가동일수를 주 3일로 줄이고 있어 생산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나이기 운동화 등을 생산하는 대만계 빅토리 칭룽 인도네시아(PT Victory Chingluh Indonesia)가 4,985명을 해고하는 등 코로나19에 의한 국제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 축소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의회 법률제정위원회, 일자리창출 옴니버스 법안 일부 조항 삭제 동의... 추후 정부와 논의

인도네시아 의회의 법률제정위원회(BALEG)는 21일 노동조합과 회담 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BALEG 실무진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 등의 노조가 20~21일 자카르타에서 협의를 나눈 후, BALEG의 윌리 아딧야 부의장은 “기간제 고용 계약과 임금, 퇴직금, 사회 보장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헌법 재판소 판결과

모순되는 점을 인정한다. 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언급했다. 의회는 법안에서 삭제할 조항이 있음을 보고하는 조항 의견서(DIM)를 작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와의 협의회에 참석한 여당 골카르(Golkar) 당의 람훗 시나가 의원은 “BALEG 실무진은 투자 유치보다 노동자의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KSPI의 익바르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이 심각한 상황 속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도 “



정부가 옴니버스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수립하고 싶다면 노동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옴니버스 법안의 노동 조항에 반대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자카르타경제신문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코로나 위기는 개혁의 기회” 스리 몰야니 재무장관



▲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1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예산 지출 장애는 데이터 부족과 관료주의 병폐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단기 위기’라 명하고, 이를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스리 몰야니 장관은 19일 ‘인도네시아 경제의 미래를 새

롭게 상상하다’라는 제목의 자카르타포스트 유튜브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려면 교육, 보건, 사회안전망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인적자원개발이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야 위대한 나라가 된다. 인도네시아

가 대국이 되기 위해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재무장관이 말했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통치 목표인 ‘골든인도네시아 2045 비전’에서 2045년에 인도네시아 1인당 국민소득 목표치를 18,130달러(2억7,000만 루피아)로 책정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국가예산 사용처를 국가개발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로 변경하고, 인적자원과 인프라 개발, 관료주의 효율성과 사업환경 개선 같은 중장기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기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다. 세계은행 소속 경제전문가 프레드리코 길 센터는 인도네시아가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려

면 사회보장과 보건 제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뎀 바스리 전 재무장관은 사회보장기금(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출해 민간소비를 부양하고 경제를 회복시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

가량 된 8월 6일 기준으로 정부는 경기부양 예산 총 695조 2천억 루피아 중 151억2,500만 루피아를 겨우 지출했다. 이어 재무장관은 인구 데이터 부족과 관료주의가 예산지출을 방해하는 주요인이라며, 일부 신임 장관들은 갑작스런 위기에 직면해서 예산 배정 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기업인 출입국 원스톱 지원... 종합지원센터 문 열어

□ 종합안내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주요 역할[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3일 삼성동 코엑스 1층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국가별 해외입국자 조치, 사증 면제협정 잠정 정지국 등 해외 출입국 관련 현황을 안내하고, 중국 신속통로 제도 및 아랍에미리트 신속 입국제도 활용을 위한 코로나19 음성 여부 확인용 PCR(유전자증폭) 검사 병원을 연결해준다.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 여부 등에 대한 상담과 전세기 운항 수요 조사 및 운항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 기업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하는 전세기 이용에 있어 관계부처, 경제단체, 유관기관, 국내 항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수요발굴부터 전세기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센터에는 무역협회와 대한상의, 산업부에서 파견한 인력들과 콜센터 직원까지 11명이 상주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매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1566-8110) 또는 이메일(www.btsc.or.kr)로 할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이후에는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해 운영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이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며 “특별 전세기 이용에 있어 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바탐·빈판 출입 허용 추진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령 바탐과 빈판 섬. [구글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바탐과 빈판 섬에 한정해 출입을 허용하는 코로나 통로(corona corridors)를 추진하고 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5일 싱가포르

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령 빈판과 바탐 섬 간 양국 여행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코로나 통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트레블 버블(travel bubbles)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레블 버블은 협정을 맺은 양국 간에는 서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로, 거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하는 개념이다. 이는 관광 다리(Travel Bridge), 코로나 통로(corona corridors)로도 표현된다. 이러한 협정을 맺으려면 상대방 국가가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2021년(辛丑年)에는

우리가족, 동호회 카렌다를 만들어 보세요!




2021

가족 카렌다, 동호회 카렌다 제작은...

1. 가족사진 및 기념일을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
2. 각 동호회 및 소그룹 카렌다를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3. 단 1권부터 제작이 가능하므로 제작비의 부담이 없습니다.
4.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pt.kwanggaeto@gmail.com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SILK ROAD

인도네시아 신발업체 가동률 32%... 대량해고 이어져

코로나19 여파로 인도네시아 신발공장 가동률이 32% 정도이며, 대량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 관계자의 말을 인용, 19일 CNBC 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피르만 바그리 협회 이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는 물론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을 수출하는 신발제조업체들이 지난 5개월 동안 타격을 받아 가동률이 32%이고, 18%의 업체는 가동을 완전히 멈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 120개 신발제조업체 가운데 2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수 만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다. 또 일부 업체들은 3일 가동하고 2일은 휴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반뜰주 땅그랑에 있는 나이키를 생산하는 신발제조업체인 쉬양야오펀(PT Shyang Yao Fun)은 2,5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중부자바주로 공장을 이전했다. 땅그랑에서 나이키를 생산하는 또다른 신발업체인 빅토리칭루(PT Victory Chingluh Indonesia)도 4,985명을 해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조세특별조치 신청 온라인화



시 규정에 해당하는 재무부장관령 '2020년 제11호'의 개정령 '2020년 제96호'에서 조세특별조치의 신청에서 서류 심사, 우대 적용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한 권한을 재무부 세무국으로부터 BKPM 청장에게 이관할 것을 규정했다. 7월 27일자로 제정, 제정일로부터 15일 이후인 이달 11일에 시행되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지난 12일, 조세특별조치(법인세 감면)의 신청 수속을 투자의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에서 11일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투자와 관련한 신청 절차를 통합하여 투자 실현을 가속화하는 목적이 있다. 특정 업종·지역 투자의 법인세 우대 조치에 관한 정령 '2019년 제78호'의 실

BKPM의 티나 대변인에 따르면, 개정령에서는 우대 적용 조건이나 기준에 변경은 없다. 그는 "상업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조세특별조치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틱톡소리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하루 종일 일해요, 쉬지 않고 일해요." 이 노래를 돌림노래로 부르며 '똑딱똑딱'만 반복되는 느낌이다. 짹짹 짹짹도 있었다. 덩치 큰 벽시계를 사면서 작고 조그만 손목시계 하나를 끼워 달랬다고 해서 깔깔 웃었다. 짹 짹 짹 짹이나 똑딱똑딱이나 다 시계 소리.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겐 틱톡틱톡으로 들렸던 모양이다.

틱톡(TiCtoK)으로 15초의 동영상 만들기 쉽고 작아, 맛보기이고, 짹짹(짧은 방영)이고, 밈(meme)이다. 29초짜리 단편 영화로 하는 UCC 영화제도 있으니 그 절반인 틱톡의 15초는 인기다. 틱톡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말이 일리 있으나 호사다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화를 입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이다. 미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거저먹고 성장한 중국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이상은 아량을 베풀 수 없다는 것,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르는 정보통신 기술기업들에 대해 미국의 기술을 사용토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서 돈을 버는 중국인의 사업 중, 미국인의 주요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건네는 것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 중에 화웨이와 틱톡이 있다. 8월 18일, 월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미국의 제조 장비를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중국 기업에 반도체 거래) 금지되고 (예외적 거래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혀 사실상 화웨이의 고사(枯死)를 시사했다. 틱톡도 미국 기업에 팔거나 아니면 철수를 해야 한다. 중국은 무슨 패(霸)를 써서라도 살아내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참에 숨통을 끊으려 할 것이다.

인터넷은 국제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되어있다.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과 IANA(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 'Internet Society' 등은 도메인 이름의 조직과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용되게 약정하고 각

대륙과 나라마다 DNS(도메인 네임 서버)를 두고 소통이 잘 되도록 하고 있다. DNS는 출입국관리소 같은 기능이 있어 여기서 입국이나 출국을 금지하면 인터넷의 소통이 안 되는데 중국은 외국의 주요 웹 사이트를 막고(입국금지) 있다.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톡도 막아 놓았다. 어찌 보면 명품의 수입금지와 같은 조치이다. 자국의 상품(사이트)은 팔고(내보내고) 타국의 상품은 수입을 막는 것이 불공정한 것이다. DNS에서는 해킹이나 맬웨어(malware)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검색하고 확인되면 차단해야하지만 모든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검열이 심한 모양이다. 그러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방송이나 언론 사이트 또한 통제를 당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틱톡에 계정을 생성하고 콘텐츠를 올릴(업로드)할 때 틱톡은 우리들(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무슨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 처리, 공유할까? 이 내용은 틱톡의 개인정보처리방침(08/12/2020 일자)을 보면 알 수 있다. 틱톡이 수집하는 정보는 IP주소, 브라우징 히스토리(이용자가 틱톡에서 본 콘텐츠), 이동통신사, 시간대 설정, 광고용 식별자 및 우리가 이용하는 앱의 버전 등이다. 또한, 우리가 쓰는 기기의 모델, 기기 운영체제, 네트워크 유형, 기기 ID, 스크린 해상도, MCC 및 운영체제와 같은 정보도 수집한다. 여기서 '기기 ID'라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기계번호인 MAC 주소라는 것이다. 맥 주소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찍어 나온, '회사정보 + 일련번호'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차대번호 같은 것이다. 이 정보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추적가능하고 이 주소로 맞춤형 광고를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틱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웹 사업자(서비스 제공자)는 쿠키나 유사한 기술(예: 웹 비콘: web beacons, 플래시 쿠키: flash cookies) 등을



조기조

이용하여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우리가 클릭한 웹페이지 및 우리가 앱을 이용하는 방식을 측정하고 분석하며, 우리에게 맞춤형 광고를 한다. 과자부스러기가 아닌 쿠키는 거부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틱톡은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명분으로는 플랫폼의 개선 및 최적화를 위하고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틱톡 기업집단 내 다른 구성원,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우리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거주하는 국가 밖에 위치한 싱가포르 또는 미국 내의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국외로 보낸다. 중국에도, 우리 이용자들은 틱톡이 보유한 우리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삭제 및 처리중단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쉽게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면 쉽게 개선이 될까? 틱톡 보다 못하지 않은 우리 앱이 많다. 실패하고 우리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던가?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 toilon.co.id



부산 車 소재기업 화인, 신발 시장 ‘도전’

부산의 대표 소재부품기업 (주)화인이 아웃도어 신발 시장에 진출한다. 화인은 2015년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동차부품용 세정기 제조업체다. 월드클래스 300기업은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깎간깐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된 기업들 대부분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자동차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인이 신발 분야 진출이라는 ‘깜짝 도전’에 나서면서 글로벌 아웃도어 시장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클래스 300’ 기술력 인정 무재봉 타입 고무 스킨 개발 K2와 신제품 적용 여부 논의 아웃도어 시장 변화 주목 화인은 17일 “본드(접착제)가 필요 없는 무재봉 타입의 고무스벨트필름 ‘고무 스킨(GOMME SKIN)’에 대해 아웃도어 브랜드인 케이투코리아에서 관심을 보여 신제품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고무 스킨은 재봉이 필요 없어 다양한 디자인 구성이 가능한 메다 색상 구현 역시 다채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케이투코리아 측은 화인이 보유한 이 같은 제품 특성이 자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차기 아이더 트레킹화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로 협의하고 있다. 원래 화인의 신소재는 특수 산업용으로 주로 쓰여 소비재인 신발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부산경제진흥원 신발 산업진흥센터는 화인 신소재를 신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8일 서울에 위치한 케이투코리아그룹에서 열린 ‘신발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박람회(Materials Show)’에 참가를 요청했다. 현장 반응도 좋았다. 행사에 참여한 케이투코리아 관계자는 “화인을 비롯한 부산 기업들의 좋은 소재와 기술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향후 제품 개발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화인의 기술력을 확인한 다수

의 글로벌 신발업체들이 화인 측에 별도 문의를 하기도 했다. 화인 관계자는 “신발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신소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화인의 신소재가 충분히 신발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차별화된 소재를 개발해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제진흥원은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를 상시화하고 확대해 국내 대형 브랜드에 지역 부품업체들이 납품할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신발 산업, 피혁 산업 등이 과거부터 발달한 부산은 소재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마케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며 “대형 브랜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 지난달 8일 열린 ‘신발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박람회’. 부산경제진흥원 제공

지역 소재, 부품 기업들이 판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산 신발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더 다양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인도네시아는 자국 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인구 2억7천만명에 국내총생산(GDP) 1조1,100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는 외형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서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에 있어서 동남아의 선도 국가가 아니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웃국가에 뒤쳐져 있다. 지난 3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부문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조차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주요 원인으로 질 낮은 노동력을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생산성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 최근 마를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자국 인력의 낮은 생산성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마를 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자카르타에 있는 개방대학(UT) 졸업식 기념연설에서 “양질의 인적자원을 가능하는



▲ 자카르타 외곽의 한 봉제공장 전경.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기준 가운데 하나가 노동생산성이다.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아세안에서 최고가 아니다”라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질의 교육이 관건이나, 인도네시아 교육은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아세안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의 연례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

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6,000달러였다. 반면 싱가포르 142,300달러이며 이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순이다. 아세안생산성기구는 역내 국가 중 상위에는 4개국은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더 나은 제도권 교육과 직업훈련을 갖추고 있는 것으

로 평가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최근 동남아 소재 일본 기업이 투자한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가 100점 만점에 74.3을 기록해, 라오스(76.2) 보다는 낮았고, 의외로 필리핀이 86.3으로 1위를 기록했다. 와타루 우에노 JETRO 선임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에서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 인도네시아 사립대학의 수브리아디(가명) 교수는 “우리 교육제도는 엉망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고등교육은 비싸고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며 “낮은 노동생산성의 주요 원인은 교육에 있으며, 교육자의 질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교에서 교수(강사)의 70% 가량이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아직도 많은 대학교에

서 학사학위 소지자가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외국계 회사에서 대졸자의 질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 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존 앤더슨 씨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대부분 신입사원들이 고용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2~3년 간 신입사원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억2,600만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1,227만명(9.7%)이 대졸자이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고졸자는 62%이다. 이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높은 비용의 대학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경영컨설팅회사인 글로벌 비즈니스 가이드(GBG)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4,498개 대학교가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교가 낮은 질의 대졸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인도네시아가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질적인 부분이 향상되어야 하며, 특히 교수의 질적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제2기 정부의 주요 사업 계획 가운데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이행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 대학교에 외국인 교수 채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근로자의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직업 훈련센터와 더 많은 인력개발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고, 예비근로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능력도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노동부는 근로자의 기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에 228,000여 명을 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규모는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노동력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숙련된 근로자가 적어도 1억1,300만명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도 사회과학보다는 기술과 과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을 끌어올려 주는 인도네시아 교육기관과 노동부가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 어떻게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장관 “신수도 기공식 2023년까지 연기될 수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조코위 퇴임 전 1단계 이주 어려워

인도네시아가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첫 삽도 못 뜨고 내후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담당 장관이 밝혔다. 20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건설을 위해 올해 3월 관련법 발의, 7월 착공, 2024년 1단계 이주를 목표를 세웠지만 3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법안 발의도 못 하고 모든 게 미뤄진 상태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 끝 불빛을 볼 때까지 신수도 정부청사 건립이 보류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전날 인터뷰에서 말했다. 국가개발기획부는 신수도 건설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수하르소 장관은 “우리는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제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2억7천만명 인구에 배포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기에 신수도 기공식은 2022년 또는 2023년까지 연



▲ 작년 12월 동칼리만탄 신수도 부지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EPA=연합뉴스)

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제약사인 바이오 파르마는 중국 시노백과 손잡고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이달 11일부터 서부 자바 반도에서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에 시노백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메라 뿌띠’도 내년 중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작년 8월 26일 신수도를 동칼리만탄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10월 20일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수도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에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까지 모두 새로 짓고,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인 2024년에 1단계 이주를 하겠다고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코

로나 사태라는 암초에 걸려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OCBC은행 이코노미스트 웰리언 위란토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대응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발전연구소(INDEF)의 에니스리 하르타티는 “경기침체가 내년 중반까지 정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신수도 이전을 논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록 코로나 사태로 신수도 건설 사업이 늦어지지만, 그 기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정부 이전 계획·로드맵·재원 조달방안 마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도서관/인쇄
광 개 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인도네시아 韓확진자 동선 사진 공개 ... LG전자 TV공장은 ‘모르쇠’

최근 인니서 귀국한 한국인 6명 코로나19 확진...LG 공사 관련 추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주 한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자진해서 동선을 공개하고, 이들이 다녀간 한인 식당·마트가 일시 영업을 중단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반면, 서부자바주 짜비퐁 생산법인에서 240여명이 집단 감염된 LG전자는 “전자 소속 한국인 직원 감염자는 없고, 협력사·공사 관련 업체 한국인 확진자는 모르겠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교민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

30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남부에 거주하는 M사 주재원 4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지난 27일, 한인 대기업 K사 소속 50대 한국인 남성 B씨가 28일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경미한 증세 때문에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중이다.

자카르타에서 한국인 확진자가 이를 연속으로 발생하자 교민 사회는 “대사관이 동선을 파악해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확진자 발생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기지국·CCTV 추적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지만, 대사관은 코로나19 관련 당사자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사관 측은 “재외공관은 주재국 법령과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3월 13일 확진자 동선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자카르타 주 정부도 세부사항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동선 공개 문

제는 어디까지나 확진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 때문에 확진자 발생 초기에는 교민 단톡방·밴드 등에서 한국인 확진자의 거주지, 사무실을 추측하는 내용이 오갔으나, 이내 확진자 A씨와 B씨가 자진해서 동선 공개를 결정하고 한인회를 통해 공지했다.

이어 이들이 다녀간 한인 식당·마트·병원이 잇따라 일시 영업 중단 또는 방역 조치와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공지했다.

자카르타 거주 한국 교민들은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다”, “동선이 겹치는 분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자”, “다 같이 조심해 고난을 이겨내자” 등 칭찬과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대사관 관계자는 “A씨 아내 등 가족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는 어제까지 안 나왔다고 했고, B씨가 속한 K사 직원들은 협력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한국인 추가 확진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며 “다만, B씨의 현지인 운전자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악된 정보로는 동부팔리만판주 발릭빠판 정유공장 근로자 2명, 북부술라웨시 주도 마나도 일가족 3명, 자카르타 거주자 A·B씨 등 인도네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은 총 7명”이라고 덧붙였다.

교민들은 LG전자 짜비퐁 공장·사무실 집단 감염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감염자 정보 공개가 불투명한 점을 지적한다.

LG전자 짜비퐁 공장에서는 19일 현지인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뒤 대규모 PCR 검사를 진행하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었다.

현지 지방정부는 협력사 직원들까지 포함해 789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2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연합뉴스 특과원의 질의에 “LG전자 소속 한국인 확진자는 없다. 한국으로 복귀한 LG전자 소속 출장

자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TV생산 라인 증설 공사와 관련된 협력사·하도급사 소속 한국인의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LG전자는 한국 구미 공장의 TV생산 라인 중 일부를 인도네시아 짜비퐁으로 옮기기로 하고 공사 중이라 한국에서 온 출장자가 많았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7일 1명, 28일 3명, 29일 1명, 이날 1명 등 최근 6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라고 발표했다.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입국자는 LG전자 공사 관련 브카시 거주 인테리어업체 직원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고,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3명도 LG전자 증설 공사에 참여하던 하도급사 임원과 가족으로 전해졌다.

교민사회에는 “LG전자 공사와 관련해 한국인 6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식의 소문도 돌고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직접 소속된 직원 외 협력사·하도급사 소속 한국인의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대사관 질의에도 협조하지 않아 동선 공개는커녕 정확한 감염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부꼬벤은행 인수 마무리

67% 인수, 경영권 확보...투자금 총 4천억원

“KB계열사와 협업, 종합금융 서비스...현지 톱10 리테일은행으로 키울 것”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중형은행인 부꼬벤은행(Bank Bukopin)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5일 부꼬벤은행의 지분 67%를 인수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이사회에서 부꼬벤은행 추가 지분인수를 결의한 이후 추진해왔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꼬벤은행에 지분 22%를 투자한 이후 지난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이달 제3차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갖게 됐다. 투자금은 총 4천억원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지분 인수로 KB금융[105560] 계열사인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과 함께 인도네시아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부꼬벤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 현장. [국민은행 제공]

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과 외국자본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현지 경계감 등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현지 금융당국 등 정부 기관, 주요 주주, 이해관계자에 KB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의지를 설득해 단기간에 3분의 2 이상의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1970년 설립된 부꼬벤은행은 지점 412곳, 현금입출금기(ATM) 835개 등 인도네시아 전역을 아

우르는 네트워크를 가진 중형은행이다.

전통적으로 연금대출, 조합원대출, 중소기업(SME) 대출을 통해 리테일(소매금융) 위주의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

국민은행은 인수 후 소규모자영업(소호), SME, 리테일 등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노하우와 선진화된 디지털 역량을 접목해 부꼬벤은행을 인도네시아 상위 10위권의 리테일은행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KOREAN PROMO 2019

MODERN GOLF & COUNTRY CLUB

주중	IDR 575.000	Include Cart
토요일 오후	IDR 1.700.000	Include Cart
	IDR 1.460.000	Walking
일요일 오후	IDR 1.500.000	Include Cart
	IDR 1.260.000	Walking

*Valid for Korean only.
*Valid until 31 December 2019.
*Player must show passport or KIMS/KITAS upon registration.
*Terms & conditions applied

BUY 1 PITCHER GET 1 FREE PITCHER

BUY 3 GLASSES GET 2 FREE GLASSES

WEEKDAYS PROMOS!

BUY 4 PAY 3 ITEM FOOD

*Price is subject to 21% of government tax & Service charge
*All promo Valid on Weekdays only
*Terms & conditions applied

For further information & registration please contact **+6221 552 9228**

marketing@modern golf.co.id www.moderngolf.co.id

Modern Golf & Country Club moderngolf_countryclub

무협 “EU·베트남 FTA 발효...베트남 진출 韓 의류·신발 기업 수혜”



▲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 캡처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EVFTA(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가 지난 1일 발효됐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EU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의류나 신발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은 5일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EU는 7년, 베트남은 10년 내로 수입액 기준 99~100%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기대된다”며 “협정문에 베트남의 제도 개혁, 비관세 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권 및 환경보호 의무 강화 등도 포함돼 베트남 경제의 선진화와 해외투자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은 2019년 1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와 이번 EVFTA 발효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역할과 위상이 더 강화될 것 이란 판단이다. 베트남은 이번 EVFTA 발효를 통해 총 52개국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TA 체결국과의 무역액이 총 무역에서 76%를 차지하게 됐다.

보고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섬유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베트남에서 EU로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EV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EVFTA를 통해 EU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신발, 의류, 가방, 완구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대(對) 베트남 유관세 품목 중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수입금액은 48억8000만달러이고 품목별로는 신발과 의류가 전체 베트남 수혜 품목의 58.3% 가량을 차지한다.

EU의 대베트남 수입 중 51.2%를 차지하는 기계와 전기전자류는 이미 대부분 최혜국대우(MFN)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FTA 체결에 따른 추가적 관세 혜택은 미미할 것 이란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베트남 한인상공인 연합회에 등록된 베트남 진출 기업은 2482개에 달하며 이 중 23.7%는 EVFTA 가장 큰 수혜업종으로 예상되는 섬유 및 신발제조 관련 기업이다. 보고서는 “EVFTA를 통해 EU에 대한 10% 이상 고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의류 및 신발 분야의 기업들이 중국 등 EU와 FTA에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머니투데이〉

인나-중국, 상호 입국 제한 완화 ‘트래블 코리더’ 도입키로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정부 관계자와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상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트래블 코리더(Travel Corridor)’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국영 안파라통신에 따르면, 이미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한국과 사이에 도입되었으며, 중국과도 조기 도입을 목표로 한다. 중국 하이난 성을 방문한 렛노 레스타리 뿌리안사리 마르수디(Retno Lestari Priansari Marsudi) 외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트래블 코리더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렛노 장관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양국은 향후 비즈니스 목적이나 정부 고관의 여행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양국 간 투자, 무역, 사업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7월 29일부터 UAE, 8월 17일부터는 한국과 각각 트래블 코리더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백신, 내년 3억 회분 확보할 것”



렛노 레스타리 뿌리안사리 마르수디(Retno Lestari Priansari Marsudi) 외무부 장관은 24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내년 분으로 최대 3억 4,000만 회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렛노 장관은 최근 방문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수도 자카르타로 돌아가 조코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에게 양국 방문의 성과를 보고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올해는 2,000만~3,000만 회, 내년 1분기(1~3월)에 8,000만~1억 3,000만 회, 2~4분기(4~12월)에 2억 1,000만 회분을 확보한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은 국산 백신의 생산 실현에 의욕을 보이고 향후 주변국에 수출할 의향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남부 땅으랑시 이혼율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반뜰주 남부 땅으랑시의 이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 펠포에 따르면, 압둘 로작 남부 땅으랑시 종교담당 사무소장은 이 지역의 이혼율이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압둘씨에 따르면, 코로나19

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방에서 많은 해고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c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러닝화 8종 비교해보니... ‘우수’ 평가 가장 많이 받은 운동화는?



한국소비자원이 러닝화의 기능성·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나이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러닝화 8개 제품의 기능성과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평가 제품은 최근 3년 내 소비자 1천명이 구매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이키 ‘레전드 리액트 2(AT1368 001)’, 뉴발란스 M680LK6(NBPFAS115B)’, 르까프 ‘에어로런(1120-SR107-29)’, 리복 ‘리퀴펙트 180 SPT AP(FV2752)’, 스캐처스 ‘맥스 쿠셔닝 프리미어(SP0MR20X411)’, 아디다스 ‘이퀵먼트 10 EM(FU8357)’, 아식스 ‘GT-2000 8(1011A688-001)’, 푸마 ‘스피드 스타미나(192513 01)’ 등 8종이 선정됐다.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 발바닥의 압력과 무릎 피로도,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 등 기능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발바닥이 젖은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를 시험한 ‘

미끄럼 저항’ 결과에선 나이키, 르까프, 푸마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덜 미끄러졌고, 러닝 시 발바닥이 받는 압력 정도를 나타내는 ‘발바닥 압력’은 나이키, 스캐처스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릎 피로도’는 아디다스가, ‘충격 흡수 및 추진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내구성 조사 결과에선 일부 제품의 안감 내구성이 미흡하

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발 안감의 손상 정도를 평가한 ‘안감 내마모성’ 평가 결과 리복, 스캐처스 2개 제품이 소비자원의 권장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운동화 겉창이 닳아 없어지는 정도를 평가한 ‘겉창 내마모성’ 시험 결과에서는 나이키, 뉴발란스, 리복, 아디다스, 아식스 5개 제품의 겉창이 쉽게 닳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접착부위가 튼튼한 정도인 ‘접착 강도’는 나이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그밖에 소비자원은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해선 8종 모두가 적합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동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나이키 르브론 17 “그래피티” 신상품 2종 출시



▲ 나이키 르브론 17 “그래피티 콜드 블루”



▲ 나이키 르브론 17 “그래피티 파이어 레드”

나이키가 르브론 제임스 시그니처 스니커즈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

나이키 르브론 17은 “그래피티 파이어 레드” 컬러와 “그래피티 콜드 블루” 컬러 두 가지로 출시됐으며,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판매되고 있다.

나이키 르브론 17 “그래피티 파이어 레드”는 2006년 출시된 레드 앤 화이트 프린트의 르브론 4 “그래피티”에서 영감을 받았다.

스트리트 아트 스타일인 이 스니커즈는 가죽 오버레이와 세미 커버 레이스, 내구력과 편안함을 위해 니트와 열형성

방적사를 니트포지트(Knit-Posite) 방식으로 결합한 어퍼가 특징이다. 체리-레드 컬러가 충격 흡수 기능의 맥스 에어 및 반동성 기능의 줌 에어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이키 르브론 17 “그래피티 콜드 블루”는 네이비 및 아이시 블루 컬러를 사용했을 뿐 기본적인 특징은 “그래피



▲ 타이탄 x 나이키 르브론 17

티 파이어 레드”와 동일하다. 메탈릭 실버 스트랩이 특징인 이 스니커즈는 착화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운동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나이키 르브론 17 “타이탄”도 뒤이어 출시됐다.

모노크롬 스타일의 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파이어 레드” 컬러를 띠고 있으며 어퍼 패널에는 타이탄의 10년 역사를 기리는 로고와 심볼이 그래픽으로 장식돼 있다. 골드 컬러의 스우시와 뒤꿈치의 제임스 왕관이 대비 효과를 내고 있으며 타이탄의 번개 로고로 강조 효과를 냈다.

제넥신, 지속형 빈혈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첫 환자투여

제넥신은 지속형 빈혈치료제 ‘GX-E4’의 아세안 지역 임상 3상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투여는 이달 19일 말레이시아의 말라야 대학병원에서 이뤄졌다. 회사는 인도네시아·호주·대만·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 6개국 45개의 임상시험 센터에서 386명의 비(非)투석 신질환 빈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할 계획이다.



▲ 제넥신 로고(제넥신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임상은 제넥신과 인도네시아의 제약사인 ‘칼베’ (Kalbe Farma)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KG BIO’가 주도하고 있다.

제넥신은 임상 2상 단계에서 GX-E4의 아세안 지역 개발

권과 사업권을 KG BIO에 기술이전 했다.

GX-E4는 제넥신의 항체융합기술을 활용한 지속형 빈혈치료제(EPO)로, 기존 제품 대비 체내 약효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개량 바이오신약이다. 기존 약의 주 3회 투약 빈도를 월 1회로 줄였다는 게 특징이다.

[연합뉴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e

Giant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

써모비 있는곳은 안전지대!!
ThermoB from TRUWIN KOREA
 ±0.3° 내의 정밀기술
 절대온도측정용 열화상 카메라



병원 & 보건소 관공서 & 은행
 카페 & 식당 공장 & 일반회사

NNFC(나노종합기술원)와 공동개발 완료
CMOS전용 공정의 최고 기술력 확보
TRUWIN (주)투루윈
 www.truwin.co.kr

자동알람기능
 이상 체온 감지시 자동 알람으로 경고
 제품 설치 후 관리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초고속 프레임으로 최상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
 ±0.3°내의 정밀한 적외선 열감지 센서 감지후 0.3초의 빠른 자동알람 기능 저렴한 가격 지속적인 무상 업그레이드

인도네시아 공식 판매처 : PSS Network
 연락처 : 0812 1105 2510 / oktokorea@gmail.com

아디다스는 ‘슈퍼스타’ 지! ... 50주년 한정판 골프화 출시



▲ 슈퍼스타 한정판 골프화

아디다스 하면 떠오르는 신발. 50주년을 맞이한 오리지널의 스테디셀러 ‘슈퍼스타’가 한정판 골프화로 다시 태어났다.

아디다스골프(대표이사 폴 파이)는 17일 공식 채널을 통해 “아디다스 오리지널의 대표 아이템인 슈퍼스타의 50주년을 기념해 ‘슈퍼스타’ 한정판 골프화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슈퍼스타’는 1970년 태어나 올해로 50세가 됐다. 태생은 농구화였다. 인기 상승을 초월했다.

농구 코트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정도. 이는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스트리트 웨어로 변모했다.

아디다스골프는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를 필드에 접목하려 노력한 끝에 ‘슈퍼스타’ 한정판 골프화를 탄생시켰다.

이는 다소 딱딱한 필드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노력.

이번 ‘슈퍼스타’ 한정판 골프화는 전통적인 디자인은 그

대로 가져가고 골프화의 디테일을 더해 필드 안에서는 성능을 발휘하고 필드 밖에서는 자연스러운 스트리트 패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안정감 있는 퍼포먼스를 위해 아웃솔에는 6개의 클릿을 배치했고, 보조 러그를 추가해 최상의 접지력을 선사한다. 또한, 어퍼는 방수 처리된 폴그레인 가죽을 사용했다.

메이슨 테니슨 아디다스골프 디렉터는 “슈퍼스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착용하는 시대를 초월한 신발이다.

그것은 항상 대중들로부터 돋보일 뿐만 아니라 경계를 넓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아디다스는 그러한 스타일과 사고방식을 그 과정에 도입하기를 원했다”고 소개했다.

이 제품은 남성용으로만 선보인다.

아디다스골프 전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주경제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1년(辛丑年)을 준비하세요!

2021

IBK Bank Indonesia Calendar 2021 Unveiling The Paradise of Indonesia and Korea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SILK ROAD**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pt.kwanggaeto@gmail.com

투자조정청

“韓기업, 바땅 공단에 공장 설립 검토”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지난 14일, 중부 자바주에 개발 중인 바땅 공단에서 한국 기업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현지 매체 끈판에 따르면, 계획되는 공장에서는 유리 제품이 생산될 전망이다.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BKPM 청장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2단계로 나누어 총 3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1,3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생산품 중 80%는 수출되고,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에 공급된다.

바흐릴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내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과 BKPM 관계자는 지난 13일 바땅 공단을 시찰했다.

투자에 즈음해 부상한 전기나 가스 공급 등 인프라

면의 문제는 BKPM에 전해지고 있으며 바흐릴 장관은 “투자 실현을 위한 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은 본사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하고 승인되면 바땅 공단 개발 업체 사이와 개발 부지 등에 대해 합의 문서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바땅 공단의 기초 인프라는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인도의 대규모 제약 회사 등도 해외 거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에서 거점을 옮기는 해외 기업을 산업 단지에 유치할 생각이며, 아구스 구미왕 가르따사스미따(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은 최근 용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케처스, 코로나 19 타격으로 2Q 실적 전반적 하락... 하지만 중국에서 회복 가능성 보여



미국의 풋웨어 대기업 스케처스가 2분기 결과를 발표했다. 수익이 42% 감소했지만, 스케처스는 중국에서의 성장을 낙관했으며 여러 시장에서의 실적도 개선됐고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처럼 스케처스도 팬데믹 기간보다 더 큰 시련에 직면한 상태다. 이는 전세계 거의 모든 시장의 임시 락다운으로 인한

것이다. 코로나 19는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당사와 파트너사, 고객들의 건강과 웰빙에 제1순위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당사는 전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렇게만 된다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로버트 그린버그 CEO는 말했다.

데이빗 와인버그 COO는 “코로나 19가 스케처스 사업에 미친 영향은 2분기에도 상당했다. 이는 전세계 거의 모든 사업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스케처스는 중국에서의 성장 반등, 중국 외 다른 시장에서 매달 지속적인 실적 개선, 회사 소유 전자상거래 사업 400% 이상 성장 등 이번 분기에 조기 회복 신호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모든 국가의 회복이 특별하지만, 당사는 유사한 회복 동향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는 나타났다가 이제는 호주, 독일, 한국, 대만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보건 위기가 안정화되고 사업이 재개된다면 시장에서 긍정적인 판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며, 스케처스도 다시 세계 풋웨어 리더가 될 것” 이라고 와인버그 COO는 강조했다.

스케처스는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2분기 해외 사업 부문에서 37.8% 하락했으며 국내 사업 분야에서는 47.3% 줄었다. 하지만 중국 시장 수익이 11.5% 상승해 해외 사업 수익 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 스케처스의 해외 도매 사업도 29.9%

감소했으며 국내 도매 사업은 57.2% 하락했다. 2분기에 거의 모든 스케처스 매장이 폐

쇄돼 DTC 사업도 47.1% 하락했다. 그리고 2분기 순손실은 6,81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현재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판매 수익은 22.2% 하락해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했으며 총 순손실은 1,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컨버스, NBA 시즌 재개 맞춰 기능성 농구화 신상품 출시



▲ 컨버스 올스타 BB 에보의 5/8 어퍼

2019년 5월 컨버스는 올스타 프로 BB를 가지고 기능성 농구화 시장에 재진입했다. 그리고 올해 3월 G4라는 또 다른 농구화를 출시한 바 있다. 그리고 NBA 시즌이 재개되자 새로운 후프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컨버스는 이전 모델의 특징을 몇 가지 차용하고 새로운 기능 추가했으며 올스타 프로 BB 디자인을 진화시킨 올스타 BB 에보(All Star BB Evo)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스니커즈는 발 앞부분에 볼러를 추가해 움직임을 강화했으며 농구 코트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게다가, 컨버스는 켈리 오브레 주니어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나타샤 클라우드 같은 몇몇 운동선수들과 전세계 남녀 농구선수 수백 명이

로부터 이미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컨버스 올스타 BB 에보는 두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다. 바로 높이와 어퍼 구성이다.

이 모델은 기능성 농구화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토크 및 미드 컷 어퍼 높이를 포기하고 5/8 높이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컨버스는 밝혔다. 그



▲ 컨버스 올스타 BB 에보의 측면부

리고 발목 부위의 안정성을 위해 패딩을 덧댔다.

또한 어퍼 구성으로써 중앙부에 50/50 스플릿을 처리해 통기성과 착화감을 높였다. 측면부에는 폐쇄형 다이아몬드 섬유 소재를 사용해 안정성과 지지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발 앞부분 구획을 개선하기 위해 나이키 플라이와

이어 매그 케이블을 사용하는 새로운 레이싱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아웃솔 둘레에 다이아몬드 러그 패턴을 사용했고, 360 마찰력에 내구성이 높은 나이키 리액트 드롭인



▲ 컨버스 올스타 BB 에보의 중앙부

미드솔을 사용했다.

“컨버스 올스타 BB 에보는 중력점이 낮다. 이 때문에 매 순간을 제어할 수 있다” 고 NBA의 스타선수이자 컨버스 홍보 모델인 켈리 오브레 주니어는 말했다.

외적으로는 “움직임과 속도” 를 강조하기 위해 스타 세브론 로고를 흐릿하게 처리했다.

컨버스 올스타 BB 에보는 지난 8월 1일 출시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2. 25mm Trimdek (1040mm)
3. 35mm Spandek (920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 35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하나 선교 교회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결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리라.”

주일에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일에배 : 매주수요일 저녁 7시

담임목사 : 김덕수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포 까라와치 루포 피당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 AUTO PALLET FEEDING SYSTEM

작업자의 PALLET LOAD-UNLOAD 시간 단축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FLAT TYPE EMBROIDERY MACHINE

고속 CPU를 적용하여 Multi-tasking 기능 및 원격제어 기능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가능



|| AUTO BOBBIN CHANGER

자동 보빈 체인저 기능으로 밑실 소진에 의한 불량 발생 차단 가능. 소진된 보빈 자동 교체로 DOWN TIME 최소화



|| 2-NEEDLES PATTERN

한대의 기계에 2개의 바늘대 운용으로 UPPER 2개의 컬러 실 사용 가능. 인원 감소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IoT SYSTEM

신발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IoT SYSTEM 구축 (OEE, KPI 등)

Making _____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SunTech R&D CENTER 개발 능력

- 재봉기, 자수기 기구 설계, 구조 해석
- 재봉기, 자수기 캠 설계 및 측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 패턴 재봉기, 자수기 컨트롤러 (CPU & OP 보드) 개발
- 패턴 재봉기, 자수기 Program 개발
- 현장 맞춤형 IoT System 개발
- 브랜드 합작 신기종 개발



SUNTECH
밀양 공장 전경



SUNTECH GLOBAL NETWORK SYSTEM

HQ & R&D CENTER & FACTORY

394-5, Sanoe-ro, Sanoe-myeon, Miryang-si, Gyeongsangnam-do
TEL +82-55-352-9304

SUNTECH CHINA FACTORY

TEL +86-755-8429-5840
H.P +86-137-1450-7030

CIKAR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HANOI BRANCH

TEL +84-24-3991-9222
H.P +84-91-494-8802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HOCHIMINH BRANCH

TEL +84-28-6682-8877
H.P +84-97-932-8610